농식품부, 산란계 사육시설 확충 지원

사육밀도 0.05㎡→0.075㎡ 확대 대응 계란 공급 감소 최소화·농가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계란 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육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 기존 마리당 0.05㎡의 면적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던 이른바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의 사육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육시설 확충을 통해 사육용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해 계란 공급 감소와 국민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란계사 신축·증개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건축 인허가 취득 여부 ▲예산 투입 대비 사육 마릿수 증가 효과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산란계 농가 가운데 사육시설을 확장해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려는 농가뿐 아니라 현재 산란계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건축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안에 공사와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란계사의 신축·증개축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선한다.

현행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신규 축사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약을 받는다.

2025년 12월 발표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전국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란계 농가의 94.4%가 해당 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가 사육 마릿수를 유지하기 위한 증·개축에도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의 상한 설정과 방역·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에 따라 산란계 농가의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지난 7월 27일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시·군 환경·축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시·군 조례로 산란계 농가의 사육 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앞으로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는 많지만 인허가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정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식품안전과 동물복지,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농식품부 전경

유용 성분 풍부한 상추, '고진미·노을쌈' 개발

농진청, 상추 신품종 선배… 소비자 선택 폭 넓혀

농촌진흥청이 영양 성분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유용 성분을 차별화한 상추 신품종 '고진미'와 '노을쌈'을 개발했다.

최근 소비자들은 농산물을 선택할 때 외관뿐 아니라 영양 성분과 기능성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 같은 소비자 기호에 대응하고 농가의 품종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새로운 상추 품종을 육성했다고 밝혔다.

상추에는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을 비롯해 비타민,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성분이 함유돼 있다.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은 상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물질로, 이를 합쳐 쓴맛 성분(BSL·비터 세스퀴테르펜 락톤)이라고 한다. 안토시아닌은 붉은 상추의 색을 나타내는 색소로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다.

'고진미'와 '노을쌈'은 우수한 상추 자원을 교배해 개발한 품종이다. '고진미'는 락투신류 함량이 높고, '노을쌈'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두 품종 모두 잎 폭이 비교적 좁고 길쭉하며 옆으로 누운 듯한 타원형의 잎 모양을 갖고 있다.

▲상추 고진미

녹색 잎에 붉은색이 뚜렷한 '노을쌈'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생체 100g당 26.03mg으로 대조 품종보다 1.4~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추 농사, 밑거름 하나로 수확 후 저장성까지

조비, 맞춤형 밑거름 '이편한S·땅조아·석회질소' 솔루션 제안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호냉성 채소인 무와 배추는 가을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월동 작형 재배가 주로 이뤄진다.

무의 뿌리 비대와 배추의 결구 형성 과정에는 다량의 양분이 필요하며, 특히 월동 후 저장고에서 수개월간 보관되는 작물 특성상 재배 기간 중 안정적인 양분 관리가 수확 후 저장성과 상품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조비는 월동 작형 재배 농가의 노동력과 시비 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작황을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밑거름 솔루션으로 '이편한S', '땅조아', '석회질소' 3종을 제안했다.

'이편한S', 아미톤 함유로 뿌리 활착과 비용 절감 동시 달성 이편한S(27-6-7+1+0.1)는 완효성 코팅요소를 함유해 양분을 작물 생육에 맞춰 서서히 공급하는 복합비료다. 웃거름 소요량을 대폭 줄여 농가의 노동력과 시비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용하다.

▲경농제공

가을 저온기에 살포된 완효성 성분은 일반 복합비료와 달리 토양 내에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재배 중후반까지 안정적인 생육 환경을 유지시킨다. 또한 비타민 B6와 아미노산 기반의 기능성 물질인 '아미톤'을 함유해 뿌리 활착을 돕고 양분 흡수를 촉진함으로써 초·중기 생장을 원활하게 끌어올린다.

'땅조아', 질산화억제제 적용으로 이듬해 봄까지 안정적 양분 보유땅조아는 질산태질소와 완효성 성분, 질산화억제제(DCD)를 결합하여 생육 기간이 긴 월동 작형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빠른 흡수가 특징인 질산태질소가 작물 초기의 활발한 생장을 돕고, 질산화억제제와 완효성 성분은 겨울철 저온기 비료 유실을 막아준다. 이후 이듬해 봄철 땅이 녹는 시기에 양분이 다시 안정적으로 용출되어 무·배추의 뿌리로 전달되므로 비료 이용률을 극대화한다. 여기에 지상부 활력을 높이는 지효성 칼슘과 황산칼리(유황) 성분이 더해져 내병성 강화는 물론 수확 후 저장성과 신선도 유지에 기여한다.

'석회질소', 토양소독과 병해충 예방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능성 비료 석회질소는 지효성 비료 효과와 토양소독, pH 개선, 칼슘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토양관리 자재다. 석회석과 질소를 고온에서 결합해 만든 제품으로, 토양 내에서 시아나미드 성분이 활성화되면서 선충및 병원균을 살균 소독하고 잡초 발생을 차단한다. 이후 소독 성분이 지효성 질소로 전환되어 작물의 생육을 돕는 이중 효과를 발휘한다.

이전 작기 후반 시비량이 많았던 토양에서는 밑거름을 감비하고 석회질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토양 개량과 비료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단, 정식 최소 2주 전 토양 혼화 처리 후 멀칭 및 충분한 담수를 해줘야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농협,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우리 쌀의 가치와 우수성 전달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18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제12회 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우리 쌀 소비 확대와 쌀의 가치 홍보에 나선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를 잇는 한 톨'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026년 선정 고품질 쌀 3종'과 '농협쌀 10대 대표브랜드' 시상식을 비롯해 우리 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원하는 기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한 톨의 시작(쌀의 역사) △오늘의 한 톨(품종·기술 발전) △내일의 한 톨(우주식량 등 미래 확장성)을 주제로 한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케이팝 그룹 아일릿(ILLIT)과 함께한 쌀 소비촉진 프로젝트 'LIKE ME, LIKE 米' 사진전도 열렸다.

이와 함께 △쌀 즉석도정 체험 △쌀포대 아트 체험 △인생네컷 포토부스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쌀의 날을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쌀이 지닌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은 쌀 한 톨에 담긴 가치를 지켜가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의 날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제정한 기념일로, 쌀 '미(米)' 자를 풀어쓰면 '八十八'이 되는 것에 착안해 매년 8월 18일을 기념하고 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축환경신문
1998년 10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다 06693
(04071)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0, 성지빌딩 601호
기사제보 전화 : 02-582-4016 팩스 : 02-582-4002
광고신청 전화 : 02-582-4016
이 메 일 press@nonguptimes.com
홈페이지 www.nonguptimes.com
자 매 지 농업경제
발행인·편집인
한명덕 | 편집국장 김대경 |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배달안내 02-582-4016
구독료 월 8,000원 / 년 80,000원
농협은행 301-0328-9561-51 ㈜농축환경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